

韓國 中東部地方 新石器時代 土器에 대하여

-襄陽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의 檢討를 中心으로-

田中聰一

Tanaka, Soichi
동아대학교

1. 序論

韓國 中東部地方은 東海에 접하고 있는 韓半島의 中緯度地帶를 가리키며, 行政區域上으로는 江原道 海岸地帶를 말한다. 그러나 實際로 그 範圍가 어느 程度까지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周邊地域의 調査가 미흡한 關係로 아직까지 確實하지 않다. 이 地方의 地形의 特徵에 관해서 살펴보면, 東海岸을 따라 險峻한 太白山脈이 連續되고, 山脈과 바다 사이에 좁은 平野地帶가 形成되어 있다. 그 平野地帶를 지나서 河川은 比較的 急傾斜를 이루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며, 河川에 의해서 運搬되어서 海岸地帶에 一旦 堆積된 土砂는 바람으로 인해 再堆積되어 東海岸의 곳곳에는 砂丘가 形成되게 된다. 또한 平野地帶의 河川流域이나 海岸線 附近의 湖水(潟湖, lagoon) 周邊에는 낮은 丘陵들이 形成되어 있고, 新石器時代 遺蹟들의 大部分은 그러한 砂丘地帶나 丘陵 위에 立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新石器時代 遺蹟들이 砂丘 위에 立地하고 있는 理由는 砂丘가 防風壁으로서의 役割을 했던 것과 함께, 砂丘周邊의 潟湖나 後背濕地가 食糧供給源으로서 利用되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新石器時代 사람들의 生活이 바다와 密接한 關係가 있었다고 하는 點도 잊어서는 안되지만, 그러한 海産資源에 대한 適應樣相을 가장 잘 보여주는 貝塚이 이 地域에서 거의 發達되지 않는 點도 큰 特徵으로 들 수 있다. 그것은 짧은 河川이 急傾斜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조개類의 生息에 必要한 plankton의 繁殖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편 海岸 가까이에서 바다가 바로 깊어져서 개펄이 거의 形成되지 않는 등, 이 地域이 조개類의 生息에는 適合한 環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 白弘基 1991

2) 土器의 施文具로서 貝殼이 利用된 경우도 약간이나마 있는 點에서 미루어, 이 地方의 新石器

中東部地方에 있어서의 新石器時代 研究는 襄陽 鰲山里遺蹟의 發見에 의해 飛躍적으로 發展되었다. 물론 그 以前에도 部分的인 調査가 行해져서 어느 程度의 資料들의 蓄積이 있었지만³⁾, 鰲山里遺蹟의 存在가 學會에 紹介되며⁴⁾ 發掘調査가 이루어진 뒤에서야 本格的으로 土器編年 및 文化系統 問題가 論議하게 되기 시작했다⁵⁾. 이러한 理由로 中東部地方 新石器時代 土器編年은 比較的 많은 遺物들이 出土된 鰲山里遺蹟의 資料를 中心으로 行해져 왔으나, 近年의 調査活動의 活潑化와 함께 그 밖의 新石器時代 遺蹟들도 多數 發見·調査되고 있어⁶⁾ 앞으로의 研究活動의 進展이 期待된다.

이러한 狀況에서, 이번 小稿에서는 韓半島 中東部地方 新石器時代의 編年·交流問題를 問題로 삼기 위해서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鰲山里式土器⁷⁾의 編年問題를 中心으로 檢討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2. 研究略史와 研究의 視點

(1) 研究略史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韓半島 中東部地方 新石器時代文化의 研究는 鰲山里遺蹟 發見 以後에 活潑化되었다. 따라서 그 存在가 學會에 알려진 1980年以前까지는 體系의인 研究가 거의 行해지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1980年代 以後의 研究成果에 관해서 鰲山里式土器의 研究를 中心으로 概觀해서 研究의 方向性을 提示하기로 한다⁸⁾.

時代 사람들이 조개類의 存在를 전혀 몰라서 利用하지 않았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利用形態 中에는 當然히 食用으로서의 利用도 包含되고 있었을 것이지만, 大規模 貝塚을 形成한 地域들과 比較해서 相對적으로 조개類의 利用量이 적었거나 廢棄pattern에서의 差異가 存在했을 可能性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有光教— 1938, 任孝宰 1966 등

4) 白弘基 1980

5) 任孝宰·權鶴洙 1984, 金元龍·任孝宰·權鶴洙 1985, 任孝宰·李俊貞 1988

6) 宮本一夫 1986, 小原哲 1987, 任孝宰 1987·1991, 金壯錫 1991, 河仁秀 1995, 李東注 1996 등

7) 池賢柄 1991, 白弘基 1995, 尹根一 1996, 金聖範·沈榮燮 1997, 國立文化財研究所 1998·1999, 高東淳 1999 등

8) 鰲山里式土器라는 樣式名은 鰲山里遺蹟(A地區 III·V層 出土土器群)을 標式遺蹟(type site)으로 해서 設定된 것이다(河仁秀 1995).

9) 鰲山里式土器의 研究史에 관해서는 이미 河仁秀씨에 의해 자세히 整理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씨의 論考(河仁秀 1995)를 參考로 해서 研究上的 큰 흐름을 本稿와 關聯되는 部分을 中心으로 整理하겠다.

먼저 鰲山里遺蹟을 처음으로 學會에 紹介한 白弘基씨는 地表採集資料라는 限定된 資料들을 통해 言及하였으나 鰲山里遺蹟 出土 土器 중에 韓半島 東北部地方과 中西部地方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系統에 屬하는 土器가 存在하고 있음을 일찍이 指摘했다¹⁰⁾. 그리고 그 報告를 이어서 鰲山里遺蹟에 대한 發掘調査가 1981年에서 1987年까지 6次에 걸쳐서 實施되었는데, 그 報告者는 鰲山里遺蹟 出土 土器가 層位的으로 V層(I文化層)→Ⅲ層(Ⅱ文化層)→Ⅱ層(Ⅲ文化層)의 順序로 變遷했다고 하는 反面, 7개 細別層位로 나누어진 V層에 관해서는 그 안에서 土器相의 變化가 不分明하다는 理由로 V層 出土土器 全體를 同一時期의 所産이라고 把握했다. 또 白弘基씨에 의해서 想起된 土器의 系統問題에 관해서는 V層段階가 韓半島 東北部地方의 西浦項I期段階와 關聯되고, Ⅱ層段階에는 中西部地方의 沈線文系土器群과 關聯性이 있음을 層位的으로 밝혀 주었다¹¹⁾.

그리고 鰲山里遺蹟 發掘調査報告書가 刊行된 뒤, 韓半島 新石器時代 土器 編年에 관한 論考가 宮本一夫씨 및 小原哲씨에 의해서 거의 同時期에 發表되었다¹²⁾. 그 안에서 中東部地方 新石器時代 編年에 관해서는 크게 隆起系土器群段階→鰲山里V層段階→鰲山里Ⅲ層段階→鰲山里Ⅱ層段階(沈線文系土器群段階)→…라는 變遷過程¹³⁾으로 보고 있으며 兩者의 見解는 비슷하다. 그러나 鰲山里V層段階의 細別層位에 대해서는 細分可能性을 생각하면서도 크게 한 時期로 보는 小原哲氏와 施文技法이나 器種構成에 層位差를 認定한 宮本一夫씨는 약간 意見의 差異를 보인다. 그 후, 얼마간 中東部地方 新石器時代 土器編年을 中心의으로 다른 論考가 發表되지 않았고 鰲山里V層段階의 細分問題도 그대로 保留되어졌다.

이러한 狀況에서 金壯錫씨가, 鰲山里遺蹟의 層位關係를 砂丘形成過程을 통해서 볼 때, V層內에서의 細別層位는 믿기 힘들다는 새로운 見解를 發表하여 鰲山里式土器에 관한 型式學的 立場에서의 編年을 試圖했다. 씨의 見解는 鰲山里遺蹟 出土 土器를 크게 隆起系土器群→鰲山里式土器→沈線文系土器群의 順序로 把握하고 있다는 點에서는 既存의 研究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鰲山里式土器에 대해서 檢討된 部分만 본다면, 먼저 Ⅲ·V層段階 土

10) 白弘基 1980

11) 任孝宰·權鶴洙 1984, 金元龍·任孝宰·權鶴洙 1985

12) 宮本一夫 1986, 小原哲 1987

13) 本稿에서 '○○系土器群'라고 하는 用語는 土器 樣式群(大樣式)을 가리키는 概念으로서 使用한다. 그 概念의 定義에 관해서는 다음 文獻을 따른다. (小林達雄 1989, 朴廣春 1994)

器를 ‘鰲山里 平底土器’라고命名해서 口緣部形態를 中心으로 하는 器形·施文
 具·文樣 施文位置를 基準으로 型式分類한 다음에, 隆起文土器와 비슷한 特徵
 을 가지고 있는 平底Ⅰ期에서, 鰲山里遺蹟에서의 獨自性이 강하게 드러나는 平
 底Ⅱ期로 變遷한다고 主張했다. 또 土器의 系統問題에 관해서 平底Ⅰ期에 있어
 서는 東北部地方 西浦項Ⅰ·Ⅱ期 및 南海岸地域 刺突文土器段階와 並行하고,
 土器製作에서의 獨自性이 강하게 나타나는 平底Ⅱ期에 관해서는 南海岸地域
 押引文土器段階와 並行하는 時期라고 指摘했다. 그 후, 河仁秀¹⁴⁾·李東注¹⁵⁾씨도
 같은 立場에서의 編年案을 提示하고 있다.

河仁秀씨는 먼저 鰲山里式土器를 7개 ‘文樣形態’로 나누고 器面上에 있어
 서 그것들의 組合인 ‘文樣帶’의 系統的 變遷過程과 각 ‘文樣形態’가 單獨으로
 文樣을 構成하는지(單獨文樣帶) 2개 以上이 複合해서 文樣을 構成하는지(複合
 文樣帶)의 差異, 그리고 鉢形·甕形土器의 型式變化를 각각 想定하여, 한 個體
 의 土器위에서 각 屬性이 어떻게 共伴되고 있는지를 檢討함과 同時に 각 型式
 組列의 變化의 方向性을 檢證하였다. 그 結果, 鰲山里式土器의 變遷過程을 單
 獨文樣帶에서 複合文樣帶로의 變化 및 器形의 型式變化 樣相에서 Ⅰ~Ⅳ段階
 (Ⅲ段階는 A·B段階로 細分)의 5段階에 걸친 變化로 把握하고 있다. 그리고
 一部 暫定的이긴 하지만 搬入·模倣土器의 檢討를 통해서 Ⅰ~Ⅳ段階의 각 段
 階를 씨의 南海岸地域 新石器時代 編年の 前期前葉~後葉과 서로 對比시켰다.
 또 그때까지 編年の 位置가 不確實했던 春川 校洞遺蹟 出土 一括資料를 鰲山
 里式土器 ⅢB段階, 씨의 南海岸地域 前期中葉에 位置를 附與한 點도 注目된다.

한편, 李東注씨는 隆起文系土器群→鰲山里式土器→沈線文系土器群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鰲山里式土器가 ‘上層部로 갈수록 壺形土器의 수가 늘어나고
 底部가 넓어지며 無文樣土器의 수가 增加한다고 하는 基本的 패턴¹⁶⁾에 따라서
 變化한다고 하며, 口緣部形態의 變化와 文樣 變化에 注目해서 第1類型~第5類
 型으로 이르는 5段階의 變遷過程을 想定했다. 그 가운데 第2·3段階가 鰲山
 里式土器의 特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點과, 第4段階의 短集線文이 다음 沈
 線文系土器群과의 過渡期的 樣相 혹은 祖型으로 될 可能性이 있다는 點이 提示
 되었다. 씨의 論考는 鰲山里式土器의 編年 自體를 問題로 삼은 것이 아니기 때
 문에 詳細하게 說明되고 있지 않지만, 視覺적으로 把握할 수 있는 ‘鉢形·甕
 形·壺形’이라는 形態差가 그대로 形式的인 系統差로서 각각 獨自적으로 型式

14) 河仁秀 1995

15) 李東注 1996

16) 李東注 1996, p.155

變化한 것이 아니라, 時期에 따라서 鉢形土器가 甕形土器로 바뀌거나 甕形土器가 壺形土器로 變化할 수도 있다는 것을 指摘한 點이 注目된다. 그리고 周邊地域과의 時期的 竝行關係에 대해서는 鰲山里式土器 第1類型이 南海岸地域과 서로 關聯性이 있다고 하고, 第4類型的 短集線文과 沈線文系土器群의 關係에 대한 指摘도 地域間的 關係를 論하는 데 있어서는 重要的 視點이라고 생각된다.

以上, 지금까지의 研究成果를 살펴보면, 韓半島 中東部地方 新石器時代 土器編年을 크게 隆起文系土器群段階→鰲山里式土器段階→沈線文系土器群段階→...로 보는 見解에 있어서는 研究者間에서 거의 一致하고 있다¹⁷⁾. 그러나 鰲山里式土器의 編年問題에 관해서는 研究者마다 立場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鰲山里遺蹟 V層의 細別層位를 어떻게 理解하는가에 따른 見解의 差異인 것 같다. 最近의 研究動向으로서 V層의 細別層位를 一括해서 그 안에서 隆起文系土器群과의 系統的인 關聯性을 型式學的으로 이끌어내는 方法論으로 編年하는 傾向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V層의 細別層位를 時間的 先後關係로 보는 見解도 提示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먼저 鰲山里遺蹟의 土層 堆積狀況을 檢討함으로써 이번 小稿에 있어서는 研究의 視點을 提示하기로 하겠다.

(2) 鰲山里遺蹟의 層位

앞에서 본 바와 같이 鰲山里式土器 研究에 있어서 그 系統問題·編年的 位置의 附與와 함께 鰲山里式土器 自體의 變遷過程의 把握이 研究의 中心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鰲山里式土器가 어느 程度의 量을 가지고 出土된 遺蹟은 襄陽 鰲山里遺蹟과 高城 文岩里遺蹟 밖에 없으며 春川 校洞遺蹟 出土의 一括資料¹⁸⁾를 합쳐도 3개 遺蹟뿐이다. 그 중에서 現在 詳細한 遺蹟의 內容을 알 수 있는 것은 鰲山里遺蹟밖에 없다. 그런데 이 鰲山里遺蹟을 檢討하기 위에서 가장 큰 爭點이 되고 있는 部分은 A地區 V層의 細別層位의 問題일 것이다. 따라서 먼저 鰲山里遺蹟의 層位에 대해서 檢討해 보고자 한다¹⁹⁾.

17) 隆起文系土器群과 鰲山里式土器의 先後關係에 있어서는 宮本一夫(宮本一夫 1986)와 같이 隆起文系土器群이 相對的으로 鰲山里式土器보다 先行하는 時期부터 鰲山里式土器와 共存하는 時期까지 存續했다고 보는 見解도 있다. 비슷한 見解는 廣瀬雄一(廣瀬雄一 1984)에 의해서도 提示된 바가 있다.

18) 金元龍 1963

19) 鰲山里遺蹟의 層位關係를 檢討하는 데에 있어서 砂丘形成過程에 관한 內容은 다음 文獻을 參考로 했다. (金壯錫 1991, 權赫在 1997)

鰲山里遺蹟은 現海岸線에서 約300m 內陸으로 들어간 潟湖 北邊에 東西方向으로 細長하게 形成된 砂丘上에 자리잡고 있다. 砂丘 形態는 中央部가 前方으로 突出해서 兩端部가 뒤쪽으로 後退한 典型的인 Barchan型 砂丘이며, 周邊地形과의 關係로 볼 때, 鰲山里 砂丘는 주로 北風으로 인해 繼續적으로 海岸의 모래가 運搬되면서 形成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Barchan型 砂丘는 주로 한 方向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해 繼續적으로 모래가 運搬되어 形成되는 것으로, 그 경우 먼저 砂丘에 堆積된 모래도 바람에 의해 다시 運搬되어 바람이 부는 쪽과 反對方向(砂丘 後面)의 傾斜面에 조금씩 再堆積된다. 이 堆積·再堆積의 反復으로 砂丘形成이 이루어진다는 點이 A地區 V層에서의 細別層位를 否定하는 根據가 되고 있다. 그 경우, 바람의 影響을 주로 받는 部分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쪽, 즉 砂丘 前面과 頂上部가 된다. 그런데 一般적으로 砂丘地帶에 있어서 大部分의 遺蹟들은 바람의 影響을 적게 받는 砂丘 後面의 傾斜面에 立地하고 있으며, 鰲山里遺蹟의 경우도 그러한 立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鰲山里的 聚落이 새로 運搬되어 온 모래에 의해서 埋沒되는 일은 있어도 바람으로 인해 크게 害損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第1圖는 鰲山里遺蹟 A地區에 있어서의 土層과 遺構檢出狀況을 1~4次 調査에 限定해서 整理한 것이다(第1圖). 이 圖面을 통해서 볼 때, V層은 黃褐色砂質層과 暗褐色砂

- I 層: 明黃褐色粘土層
- II 層: 黃褐色砂質層
(黑色砂質-間層)
- III 層: 暗褐色砂質層 ... 環狀石列
- IV 層: 黃褐色砂質層(無遺物包含層)
- V-①層: 暗褐色砂質層(有機物을 많이 包含) ... 1號 住居址
- ②層: 黃褐色砂質層 ... 2號 住居址
- ③層: 暗褐色砂質層(有機物을 많이 包含) ... 3·4號 住居址, 野外爐址(石粗爐)
- ④層: 黃褐色砂質層 ... 5號 住居址
- ⑤層: 暗褐色砂質層 ... 6·7號 住居址
- ⑥層: 黃褐色砂質層
- ⑦層: 暗褐色砂質層 ... 8號 住居址, 野外爐址(集石遺構)
- VI 層: 黃褐色砂質層(無遺物包含層, 暗褐色帶 反復)
- 生土層: 바다 모래

第1圖 鰲山里遺蹟 A地區 1~4次 調査 層位關係 및 遺構 檢出狀況

20) 金壯錫 1991, p.4~5

質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堆積되고 있어서 砂丘가 堆積期와 安定期를 反復하면서 堆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 層位에 걸쳐서 形成된 遺構의 存在에서도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非正常的 過程下에서 發生하는 堆積은 砂丘의 各部分에 따라 매우 多樣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砂丘의 全體 層位를 하나의 堆積過程에서 一括的으로 說明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砂丘遺蹟에서는 여러 攪亂要因이나 層位の 誤認 등이 存在하기도 한다. 따라서 砂丘遺蹟에 있어서 層位를 無條件的으로 믿으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出土遺物의 層位の인 檢討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以上과 같은 視點에서 論을 進行하려고 한다. 즉, 鰲山里式土器에 대해서 먼저 型式學的인 方法으로 檢討한 뒤, 그것을 層位的으로 다시 檢證하는 方法으로 分析하기로 하겠다. 그 結果, 層位の 變化에 따라 土器相의 變化에도 어떤 變化가 보일 경우, 鰲山里遺蹟의 層位가 元來의 層位關係를 어느 程度 維持하고 있다고 判斷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實際로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의 分析에 들어가 보도록 한다.

3.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의 檢討

新石器時代 土器의 編年研究에 있어서 土器의 器形과 文樣은 아주 重要한 屬性이지만, 遺蹟에서 出土된 土器의 大部分이 破片資料이기 때문에 그 全體 器形을 알기 어려운 點이 研究上의 가장 큰 難點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도 分析資料의 충분한 蓄積을 통해서 어느 程度 克服할 수 있을 것이며, 그 過程에 있어서 型式學的 研究方法은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本章에서는 먼저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의 器形과 文樣에 대해서 型式分類²¹⁾를 試圖하고 그 變遷過程을 型式學的으로 檢討한 다음, 이것을 層位的으로도 確認하는 작업을 통해 器形과 文樣의 複合體인 土器의 變遷過程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器形分類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의 器種은 鉢形·甕形·壺形·坩形土器로

21) 金壯錫 1991, p.5, 1.19~21

22) 이번 小稿의 型式分類에 있어서는 河仁秀씨에 의한 型式分類을 많이 參考로 했다(河仁秀 1995).

大別되며, 기타 若干의 小型 土器를 隨伴하고 있다. 그 중에서 確實히 肩部를 가지고 있거나 胴部가 부풀어 外反口緣을 가진 器形을 甕形이라고 한다면, 器種組成比率은 절반 以上을 甕形土器가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鉢形土器가 많고, 壺形·坩形·기타 小型土器의 順序이다. 이 鰲山里遺蹟에 대한 統計結果가 中東部地方에서 그 當時의 土器相을 그대로 나타낸다고는 判斷하기 어려우나, 甕形·鉢形土器가 器種組成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鰲山里式土器의 樣式的 特徵 중의 하나로 解釋해도 問題가 없다고 본다.²³⁾²⁴⁾

따라서 이번 小稿에서는 器種組成의 中心이 되고, 施文文樣과의 相關關係가 檢討되는 資料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甕形·鉢形土器(一部 坩形土器도 包含)에 대해서 口緣部를 中心으로 한 器形的 特徵을 基準으로 해서 型式分類했다. 그러나 既存의 '甕形'이나 '鉢形'의 形式概念은 使用하지 않고, 甕形·鉢形全體를 통해서 器形變異를 分類하기로 했다. 이것은 각 器種을 設定하기 위해서는 資料의 不足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며, 각 器種變異는 一定 level에서 大別(I·II·III類...)해서 必要 以上으로 細別하지 않았고, 그래도 細別되야 할 必要性이 느껴진 것에 대해서는 그 下位 level(Ia·Ib·Ic類...)로서 分類했다. 이러한 視點에서 器形變異를 分類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I類: 口緣部가 '〈'字狀으로 外反하여 內口緣部가 平坦面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 屈曲部에 있어서 內口緣部에 稜線을 가진다. 胴體上部에서 약간 좁아지고 다시 口緣部에서 外反하는 것(Ia類, 第2圖-1·2)과 胴部에서 그대로 좁아지지 않고 口緣部로 連結되는 것(Ib類, 同-3)이 있다. 그러나 Ia類의 경우라도 胴體上部의 內灣度는 낮아서 胴部最大徑과 口徑의 差異가 大部分 1cm程度 以內이며, Ib類와의 區分이 曖昧한 것도 있다. Ia類의 경우 胴部最大徑은 胴體中央에서 胴體上部에 位置한다.

II類: 口脣部에 좁은 平坦面을 가지거나 둥글게 處理되고 있는 것이며, 口脣部에서 짧게 外反하는 것도 包含시킨다. 口緣部의 外反에 관해서 그것이 짧게 外反하는 경우에도 內口緣部의 平坦面은 I類 程度까지는 넓지 않고, 屈曲部에 있어서의 內口緣部의 稜線이 不分明한 것도 있다. 胴體上部에서 서서히 좁아지고 內灣口緣이 되는 것(IIa類, 同-4·5)과 口緣部가 直立 혹은 若干 外反하는 것(IIb類, 同-6~10)으로 나눌

23) 河仁秀 1995, p.157~158

24) 물론 器種組成과 그 比率은 時間軸과 함께 變動할 可能性이 큰 것이며, 이러한 狀況이 樣式全體의 特徵으로 認定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檢討를 必要로 할 것이다.

大別되며, 기타 若干의 小型 土器를 隨伴하고 있다. 그 중에서 確實히 肩部를 가지고 있거나 胴部가 부풀어 外反口緣을 가진 器形을 甕形이라고 한다면, 器種組成比率은 절반 以上을 甕形土器가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鉢形土器가 많고, 壺形·坩形·기타 小型土器의 順序이다. 이 鰲山里遺蹟에 대한 統計結果가 中東部地方에서 그 當時의 土器相을 그대로 나타낸다고는 判斷하기 어려우나, 甕形·鉢形土器가 器種組成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鰲山里式土器의 樣式的 特徵 중의 하나로 解釋해도 問題가 없다고 본다.²³⁾²⁴⁾

따라서 이번 小稿에서는 器種組成의 中心이 되고, 施文文樣과의 相關關係가 檢討되는 資料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甕形·鉢形土器(一部 坩形土器도 包含)에 대해서 口緣部를 中心으로 한 器形的 特徵을 基準으로 해서 型式分類했다. 그러나 既存의 '甕形'이나 '鉢形'의 形式概念은 使用하지 않고, 甕形·鉢形全體를 통해서 器形變異를 分類하기로 했다. 이것은 각 器種을 設定하기 위해서는 資料의 不足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며, 각 器種變異는 一定 level에서 大別(I·II·III類...)해서 必要 以上으로 細別하지 않았고, 그래도 細別되야 할 必要性이 느껴진 것에 대해서는 그 下位 level(Ia·Ib·Ic類...)로서 分類했다. 이러한 視點에서 器形變異를 分類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I類: 口緣部가 '〈'字狀으로 外反하여 內口緣部가 平坦面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 屈曲部에 있어서 內口緣部에 稜線을 가진다. 胴體上部에서 약간 좁아지고 다시 口緣部에서 外反하는 것(Ia類, 第2圖-1·2)과 胴部에서 그대로 좁아지지 않고 口緣部로 連結되는 것(Ib類, 同-3)이 있다. 그러나 Ia類의 경우라도 胴體上部의 內灣度는 낮아서 胴部最大徑과 口徑의 差異가 大部分 1cm程度 以內이며, Ib類와의 區分이 曖昧한 것도 있다. Ia類의 경우 胴部最大徑은 胴體中央에서 胴體上部에 位置한다.

II類: 口脣部에 좁은 平坦面을 가지거나 둥글게 處理되고 있는 것이며, 口脣部에서 짧게 外反하는 것도 包含시킨다. 口緣部의 外反에 관해서 그것이 짧게 外反하는 경우에도 內口緣部의 平坦面은 I類 程度까지는 넓지 않고, 屈曲部에 있어서의 內口緣部의 稜線이 不分明한 것도 있다. 胴體上部에서 서서히 좁아지고 內灣口緣이 되는 것(IIa類, 同-4·5)과 口緣部가 直立 혹은 若干 外反하는 것(IIb類, 同-6~10)으로 나눌

23) 河仁秀 1995, p.157~158

24) 물론 器種組成과 그 比率은 時間軸과 함께 變動할 可能性이 큰 것이며, 이러한 狀況이 樣式全體의 特徵으로 認定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檢討를 必要로 할 것이다.

수 있다.

Ⅲ類: 胴部에서 서서히 벌어지면서 올라온 器形이 口緣部 바로 밑에서 한번 좁아지고 肩部를 이룬 후, 直立口緣으로 連結되는 것(同-11~13). 胴部最大徑은 胴體上部에서 肩部에 位置하며, 胴部最大徑과 口徑의 差異는 1~3 cm程度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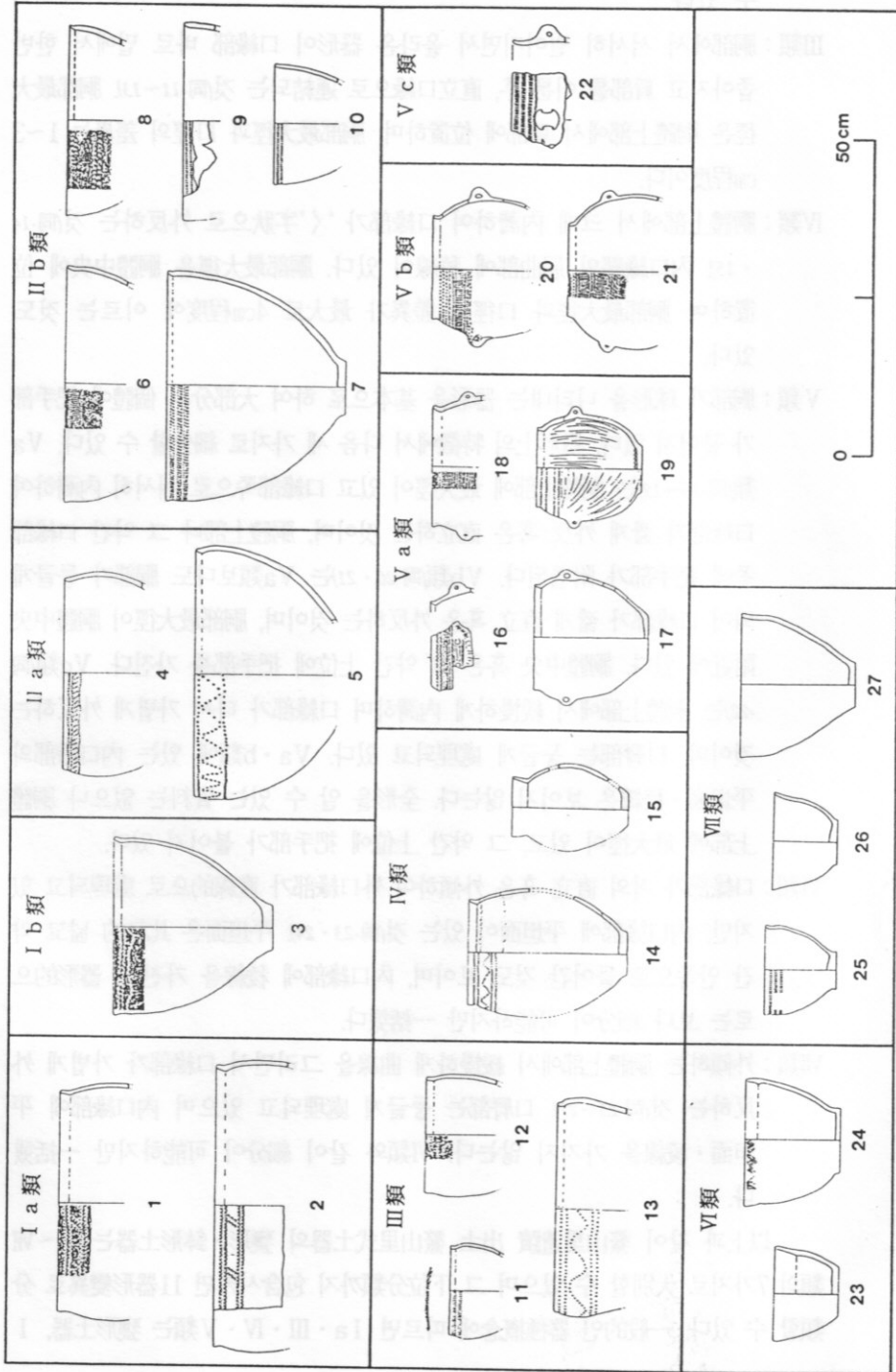
Ⅳ類: 胴體上部에서 크게 內灣하여 口緣部가 'く'字狀으로 外反하는 것(同-14·15). 內口緣部の 屈曲部に 稜線이 있다. 胴部最大徑은 胴體中央에 位置하여 胴部最大徑과 口徑의 差異가 最大로 4cm程度에 이르는 것도 있다.

V類: 胴部가 球形을 나타내는 器形을 基本으로 하여 大部分의 個體에 把手部가 붙어져 있다. 器形上의 特徵에서 다음 세 가지로 細分할 수 있다. Va類(同-16~19)는 胴體上部에 最大徑이 있고 口緣部쪽으로 서서히 內灣하여 口緣部가 짧게 外反 혹은 直立하는 것이며, 胴體上部나 그 약간 口緣部 쪽에 把手部가 附着된다. Vb類(同-20·21)는 Va類보다도 胴部가 둥글게 되어 口緣部가 짧게 直立 혹은 外反하는 것이며, 胴部最大徑이 胴體中央附近에 있다. 胴體中央 혹은 그 약간 上位에 把手部를 가진다. Vc類(同-22)는 胴體上部에서 緩慢하게 內灣하며 口緣部가 다시 가볍게 外反하는 것이며, 口脣部는 둥글게 處理되고 있다. Va·b類에 있는 內口緣部の 平坦面·稜線은 보이지 않는다. 全形을 알 수 있는 資料는 없으나 胴體上部에 最大徑이 있고, 그 약간 上位에 把手部가 붙어져 있다.

Ⅵ類: 口緣部가 거의 直立 혹은 外傾하여 外口緣部가 直線의으로 處理되고 있지만, 內口緣部에 平坦面이 있는 것(同-23·24). 平坦面은 比較的 넓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것도 보이며, 內口緣部에 稜線을 가진다. 器形的으로는 보다 細分이 可能하지만 一括했다.

Ⅶ類: 外傾하는 胴體上部에서 緩慢하게 曲線을 그리면서 口緣部가 가볍게 外反하는 것(同-25~27). 口脣部는 둥글게 處理되고 있으며 內口緣部에 平坦面·稜線을 가지지 않는다. Ⅵ類와 같이 細分이 可能하지만 一括했다.

以上과 같이 鰲山里遺蹟 出土 鰲山里式土器의 甕形·鉢形土器는 I~Ⅶ類의 7가지로 大別할 수 있으며 그 下位分類까지 包含시키면 11器形變異로 分類할 수 있다. 一般的인 器種概念에 따르면 Ia·Ⅲ·Ⅳ·V類는 甕形土器, I



第2圖 蘇山里遺蹟出土 蘇山里式土器鉢・甕形土器 器形變異 分類圖

b·II·VI·VII類는 鉢形土器로 分類될 수 있을 것이다. 또 研究者에 따라서는 IV·V類를 壺形土器, I·II·VI·VII類에서도 小型인 것들은 埴形土器에 包含시켜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번 器形分類에서는 土器의 크기(法量)에 관해서 特別히 問題로 삼지 않았지만, 土器의 機能的 側面에서 볼 경우 法量은 아주 重要的 屬性이 될 것이며, 各 器形變異의 器種概念으로의 大別 및 細別作業과 함께 앞으로 檢討해야 할 課題이다.

(2) 文樣分類

土器文樣은 文樣要素·文樣形態·文樣構成²⁵⁾이라는 概念으로 理解할 수 있다. 文樣要素가 보다 下位 分類概念이며 文樣構成이 보다 上位 分類概念이 되는데, 實際의 分類에 있어서는 文樣要素에서 文樣形態, 그리고 文樣構成의 順序, 즉 細別→大別 方向으로 행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²⁶⁾.

먼저 文樣要素에 관해서 살펴보면 施文技法의 特徵에서 크게 刺突·連續刺突·沈線·口脣刻目の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內容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刺突: 先端部가 圓形·橢圓形·半圓形·(半)竹管形·三角形·長方形 등 多様な 形態의 施文具에 의해 土器의 器面에 대해서 垂直 혹은 銳角 方向에서 刺突하는 文樣要素로 器面에 남는 施文痕迹은 施文具 先端部の 形態와 施文角度에 의해서 決定된다.

連續刺突: 先端部가 細長方形 혹은 爪形의 施文具로, 그것을 하나씩 單獨으로 찍어서 施文한 것이 아니라 刺突位置를 조금씩 옮기면서 連續的으로 刺突하는 文樣要素이다. 따라서 施文痕迹은 서로 連結되고 있다. 그 외에 多齒具나 刺突技法의 경우와 같은 施文具를 使用해서 連續刺突技法으로 施文된 文樣要素도 있다.

沈線: 先端部가 뾰족한 施文具로 土器의 器面에 線을 그리는 文樣要素로 數的으로는 그다지 많지 않다.

口脣刻目: 土器의 口脣部를 주걱狀 施文具로 새긴 文樣要素로 口脣刻目이 施文된 土器의 數量은 많지 않다.

25) 이 概念들 以外에 文樣帶라는 概念도 있는데 文樣帶는 文樣構成의 構成單位이며 文樣形態보다는 上位의 概念이다.

26) 田中聰一 1998, p. 11~12

鰲山里式土器의 文樣의 大部分은 上記한 文樣要素의 어느 한가지를 選擇해서 여러 模樣의 文樣形態를 器面에 施文하고 있는데, 文樣形態의 種類는 平行刺突点列文·山形(波狀)点列文·編目狀刺突文²⁷⁾·短集線文·斜格子文·山形沈線帶文 등 比較的 單純한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文樣形態를 單獨으로 施文하거나 여러개를 組合하여 全體的인 文樣(文樣構成)을 器面에 配置한다. 이런식으로 施文된 文樣들을 施文技法이라는 觀點에서 보면, 크게 刺突技法에 의해서만 施文된 刺突文樣群(A文樣群), 刺突技法과 連續刺突技法을 複合해서 施文된 刺突·連續刺突文樣群(B文樣群), 連續刺突技法만으로 施文된 連續刺突文樣群(C文樣群), 沈線技法에 의해서만 施文된 沈線文樣群(D文樣群)의 4文樣群으로 分類된다²⁸⁾. 각 文樣群은 文樣要素·文樣形態·文樣構成의 特徵에서 文樣變異로 보다 細分할 수 있으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刺突文樣群(A文樣群) : 刺突技法만으로 文樣이 施文되는 것이며, 文樣要素와 文樣形態·文樣構成의 差異를 基準으로 다음과 같이 細分된다(第3圖).

Aa1類 : U字形竹管文²⁹⁾을 옆에 있는 것들끼리 서로가 접하도록 하나씩 가로방향으로 刺突하면서 刺突點列文을 3~6條 口緣部에 돌린 것(1~5)이다. 口脣部の 若干 밑에서부터 施文을 시작하여 点列文을 全體 連結해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一部 空白로 남겨둔 경우도 있다.

Aa2類 : Aa1類와 같이 施文된 U字形竹管文 2條로 平行橫帶區劃하여 그 內部에 같은 施文具로 施文된 2條1單位의 平行斜行点列文이나 山形文을 充塡施文한 것(6·7)이다. 橫帶區劃이 아니라 口緣部에 2條의 半竹管點列文으로 水平區劃한 뒤, 그 아래쪽에 波狀(山形) 半竹管文을 配置한 것(8)도 包含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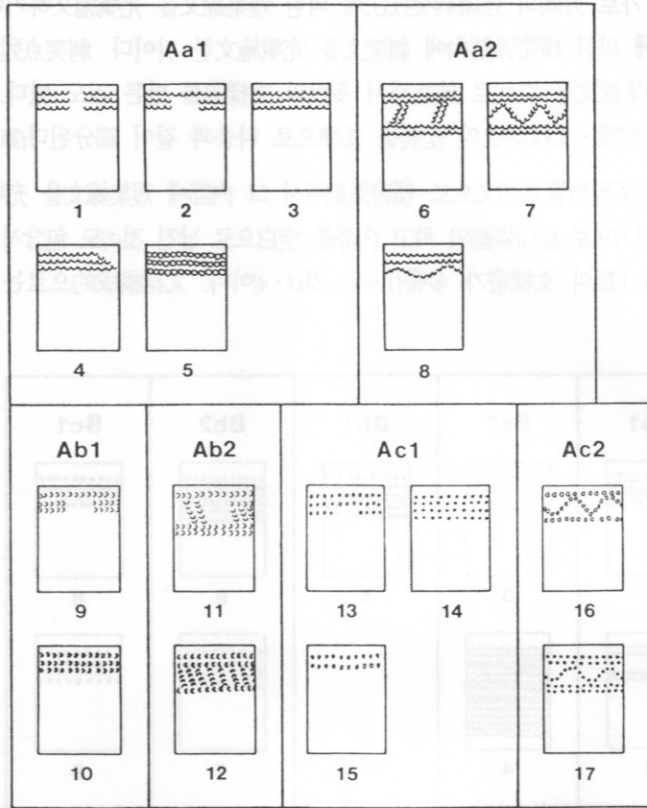
Ab1類 : C字形竹管文³⁰⁾으로 Aa1類와 비슷한 文樣構成의 文樣을 施文한 것(9·10)이다. Ac1類와 區別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27) 刺突文가 上下로 엇갈리게 施文되고 있는 文樣形態이며 Amur江流域에서 沿海州·三江平野 및 牡丹江流域地域·韓半島東北部地方에 넓게 分布하고 있는 Amur編目土器를 意識해서 筆者가 任意로 붙인 名稱이다.

28) 口脣刻目技法에 관해서는 出土量이 적어서 文樣變異로서의 意味있는 特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檢討對象에서는 除外시켰다. 그러나 그 系統問題에 대해서는 注意해서 研究할 必要性이 있는 文樣要素이다.

29) 위쪽으로 開放된 半竹管文

30) 옆으로 開放된 竹管文



第3圖 A文樣群 文樣變異 模式圖

Ab2類 : C字形竹管文으로 Ab1類와 비슷한 文樣構成의 文樣을 施文한 것(11·12)이다. Ac2類와 區別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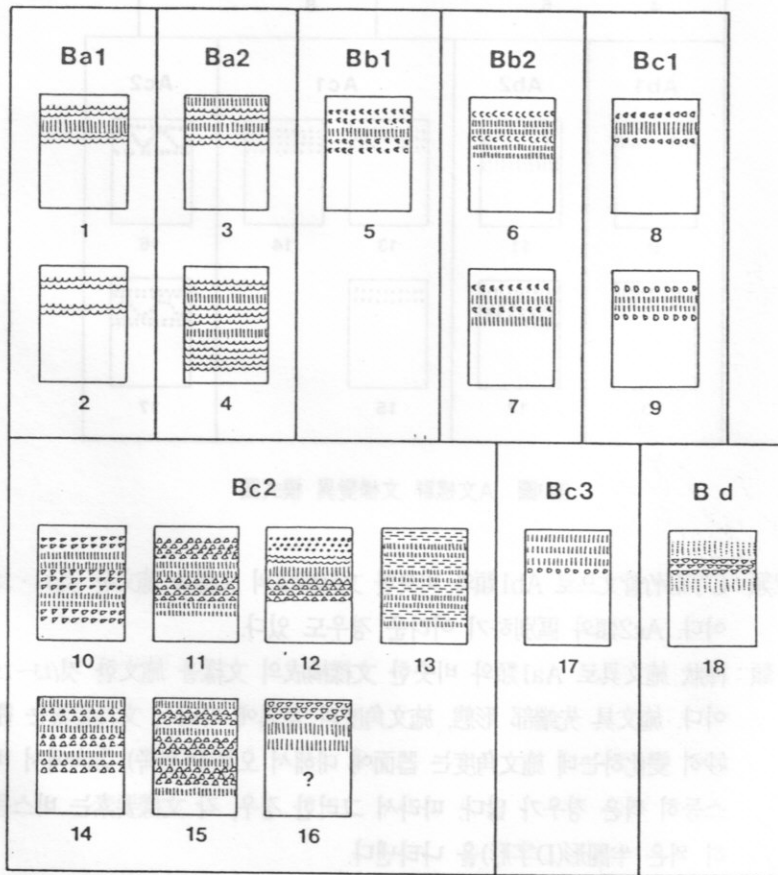
Ac1類 : 棒狀 施文具로 Aa1類와 비슷한 文樣構成의 文樣을 施文한 것(13~15)이다. 施文具 先端部 形態, 施文角度的 差異에 따라서 文樣要素는 微妙히 變化하는데 施文角度는 器面에 대해서 오른쪽(왼쪽) 方向에서 비스듬히 찍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각 文樣要素는 비스듬히 찍은 半圓形(D字形)을 나타낸다.

Ac2類 : Ac1類와 같은 施文具로 Aa2類와 비슷한 文樣構成의 文樣을 施文한 것(17·18)이다.

刺突·連續刺突文樣群(B文樣群) : 1~2條의 刺突点列文에 의한 平行橫帶區劃內에 가로 方向의 連續刺突技法에 의한 短集線文을 充墳施文하거나, 連續刺突技法에 의한 橫帶區劃內에 刺突文을 充墳施文한 것이다. 刺突点列文과 連續刺突 短集線文을 交代로 施文해서 多段의 文樣帶를 만든 것도 있다. 文樣要素와 文樣形態·文樣構成의 差異를 基準으로 다음과 같이 細分된다(第4圖).

Ba1類 : U字形竹管点列文으로 橫帶區劃해서 그 內部에 短集線文을 充墳施文한 것¹⁾으로 橫帶區劃만 하고 內部를 空白로 남긴 것²⁾도 包含시켰다.

Ba2類 : Ba1類의 文樣帶가 多帶化³⁾된 것^{3·4)}이다. 文樣構成的으로는 橫帶區



第4圖 B文樣群 文樣變異 模式圖

31) 文樣帶의 多帶化라고 하는 것은 '어떤 文樣帶가 從來 文樣帶가 없던 部分에 轉移되거나 하나의 文樣帶가 幅이 좁은 複數의 文樣帶로 代置되거나해서 文樣帶의 수를 늘이는 경우'를 말한다(今村啓爾 1983). 그 외에도 文樣帶 配列에는 多樣한 變形規則이 存在하고 있다(今福利惠 1990).

劃內充填施文이라고 하기보다는 竹管点列文과 連續刺突短集線文을 交代로 施文한 形態라고 할 수 있다.

Bb1類: C字形竹管点列文으로 橫帶區劃한 뒤, 그 內部에 短集線文을 充填施文한 것(5)이다.

Bb2類: Bb1類의 文樣帶가 多帶化된 것(6·7)이다.

Bc1類: 刺突点列文으로 橫帶區劃한 다음에 그 內部에 短集線文을 充填施文한 것(8·9)이다.

Bc2類: 刺突文과 短集線文을 交代로 施文한 것인데, 刺突文이 三角形을 中心으로 해서 圓形·長方形·半竹管形 등 多樣하게 보인다(10~16). 한 個體中에 한가지의 刺突文과 短集線文이 複合施文되고 있는 경우가 大部分이지만 複數의 文樣要素의 刺突文과 短集線文이 複合施文되는 경우(12)도 있다. 또 刺突文안에는 刺突位置를 아래위로 엇갈리게 施文³²⁾해서 編目狀으로 配置한 것(11~13·15·16 등)도 보인다.

Bc3類: 口緣部 밑에 連續刺突 短集線文을 3條 施文해서 그 아래쪽을 Ab類와 같은 施文具에 의한 1條의 刺突点列文으로 水平區劃한 것(17)이다.

Bd類: 2條1單位의 多齒具 連續刺突에 의한 短集線文 橫帶區劃內에 三角形 刺突文을 充填施文한 것(18)으로 刺突文의 位置가 아래위로 엇갈리게 施文되어져 編目狀 刺突文이 된 것이다.

連續刺突文樣群(C文樣群): 先端部가 平坦하거나 爪形으로 된 施文具로 앞으로 連續刺突하여 短集線文을 2~4條 程度 施文한 文樣形態를 基本으로 한다. 出土量은 적지만 多齒具를 利用해서 施文된 것들도 보인다. 文樣要素와 文樣形態·文樣構成의 差異를 基準으로 다음과 같이 細分된다(第5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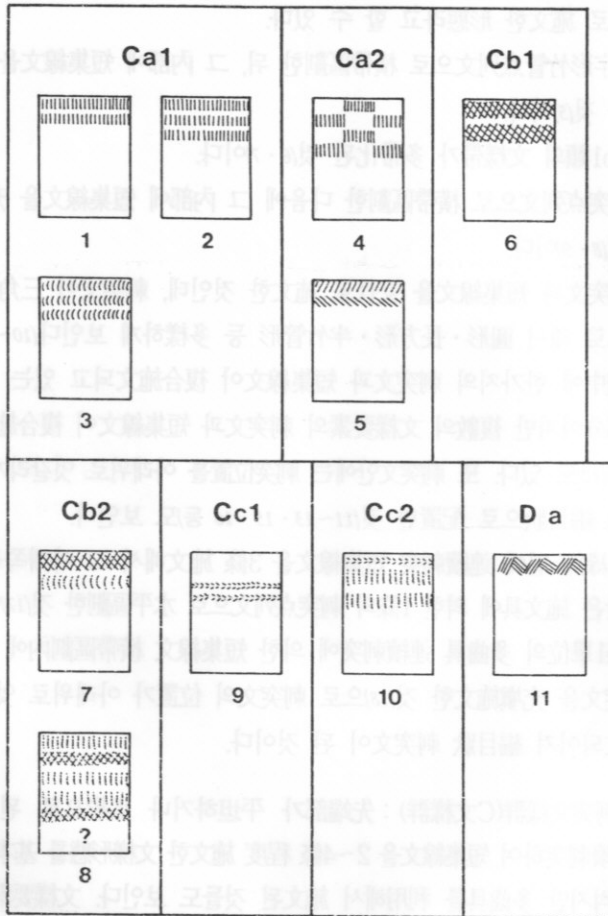
Ca1類: 口緣部에 2~4條 程度의 橫位 短集線文을 施文한 것(1~3)이다.

Ca2類: 短集線文을 一定한 幅으로 엇갈리게 施文하거나 아래위로 方向을 다르게 해서 橫走魚骨文狀으로 施文하는 것에 의하여 文樣에 變化를 가지게 한 것(4·5)이다.

Cb1類: 若干 幅이 넓은 施文具에 의한 短集線文을 交差시키는 方法³³⁾으로 斜

32) 視覺적으로는 아래위로 엇갈리게 되도록 施文한 것 같지 보이는 것들 中에도 實際로는 平行斜行刺突点列文을 密集시켜서 施文한 結果로서 엇갈리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 施文技法의 復元에 있어서는 詳細한 觀察이 必要하다.

33) 嚴密하게 나눈다면, 이 경우 文樣要素는 連續刺突이 아니라 하나씩 單獨으로 찍은 것이다. 여기서는 一定 幅을 가지고 平行하는 線狀의 痕迹이 器面에 남게 된다는 共通點을 重視해서 이 文樣群으로 分類했다.



第5圖 C·D文樣群 文樣變異 模式圖

格子文을 만든 것(6)이다.

Cb2類 : Cb1類의 斜格子文과 短集線文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交代로 施文한 것(7·8)이다. 多齒具·貝殼 腹線部에 의한 施文도 보인다.

Cc1類 : 口緣部에 空白部分을 남겨두고 그 아래쪽에 2齒具에 의한 連續刺突 1條를 돌리고 水平區劃한 것(9)이다.

Cc2類 : Cc1類와 같이 2齒具에 의한 1條의 連續刺突으로 水平區劃한 後, 그 아래쪽에 多齒具連續刺突에 의한 短集線文 2條가 施文된 것(10)이다.

沈線文樣群(D文樣群) : 沈線技法만으로 文樣을 施文한 것이다(第5圖).

Da類 : 4條1單位的 平行沈線帶를 山形으로 配置한 것(11)이다.

以上과 같이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의 文樣을 먼저 施文技法의 特徵에 따라 分類해서 4文樣群을 設定한 다음, 각 文樣群을 文樣要素·文樣形態·文樣構成의 特徵을 통해 文樣變異로 다시 細分했다. 그 結果 A文樣群에 관해서는 6文樣變異, B文樣群에 관해서는 8文樣變異, C文樣群에 관해서는 6文樣變異로 細分할 수 있었으며, 全體的로는 4文樣群 21文樣變異로 分類하였다.

(3) 鰲山里式土器의 變遷過程

앞에서는 器形과 文樣에 관해서 주로 型式學的 立場에서 分類해 보았는데, 여기서는 각 分類單位가 어떤 關係에 있는지에 대한 型式學 혹은 層位學的인 檢討를 통해서 鰲山里遺蹟 出土 鰲山里式土器의 變遷過程을 살펴보고자 한다. (層位的 出土狀況에 관해서는 第1表 參照)

第1表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 層位別 器形變異 出土狀況
(1~3次 調査)

層位 \ 器形	Ia	Ib	IIa	IIb	III	IV	Va	Vb	Vc	VI	VII	壺
III											4	1
V①			2	6	1		(1)			1	2	1
②				1						3	1	1
③	1	1	1(1)	11		2			1			
④				4		1				2		
⑤	3(1)	1	1		4		2	(1)				
⑥	3	1			2		(2)					
⑦	1	1					1	1				

(4次 調査)

層位 \ 器形	Ia	Ib	IIa	IIb	III	IV	Va	Vb	Vc	VI	VII	壺
III												
V①						(1)						
②												
③												
④												
⑤	8	1					(1)					
⑥	1	2			2							
⑦	1											

34) 出土層位の 檢討에 있어서는 層位の 全體에 걸쳐서 一定量의 資料들이 出土되고 있는 A地區 1~3次 調査의 調査結果를 主로 利用하기로 한다.

器形 層位	Ia	Ib	IIa	IIb	III	IV	Va	Vb	Vc	VI	VII	壺
III												
Va			3	1		3						
b						1	2					
c	2				3		1	3				
VI上面							1					

먼저 器形에 있어서 各 器形變異의 型式的 系統關係를 想定할 수 있는 것은 ①Ia·Ib·IIa·IIb類, ②Va·Vb·Vc類, ③VI·VII類이다. ①의 경우, 外反하는 口緣部の 退化 혹은 發達³⁵⁾이라는 視點에서 Ia↔IIa類, Ib↔IIb類라는 型式組列이 생각되고, 한편 胴體上部가 內灣하는 것에서 直立·外傾하는 것으로의 變化 혹은 그 反對 方向으로의 變化라는 視點에서는 Ia·IIa類→Ib·IIb類라는 型式組列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關係에 대해서 出土層位를 통해서 檢討해 보면, Ia·Ib類가 相對的으로 下位에서 出土되고 있고, IIa·IIb類가 相對的으로 上位에서 出土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에 관해서는 Ia·Ib類→IIa·IIb類라는 型式變化의 方向性を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 Ia類와 Ib類, IIa類와 IIb類라는 器形變異의 差異가 그 當時의 社會에 있어서 意識的으로 區別되고 있었는지가 問題인데, 現段階에서는 明確하지 않다. 여기서는 Ia·Ib類, IIa·IIb類로 크게 묶어서 外反口緣이 退化해서 口緣部가 짧게 外反하거나 좁은 平坦面으로 가지게 되든지 口脣部가 둥글게 處理되는 口緣部로의 連續的인 變化로서 把握해 두겠다.

②에 관해서는 胴部の 球形度의 差異에 의해 Vb↔Va↔Vc類라는 組列을 생각할 수 있는데 出土層位에서는 Vb類와 Va類의 關係는 分明하지 않아서 Vb·Va→Vc類라는 型式變化의 方向性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5·6次 調査에서는 1點만 出土된 것이지만 VI層 上面에서 Va類가 出土되며(第 2圖 16), 이것이 Vb類 出土層보다도 아래쪽임을 감안한다면 Va類가 Vb類보다 조금 앞설 可能性도 있다.

35) 여기서는 單純히 外反口緣이 길어지는 變化는 '發達', 짧아지는 變化를 '退化'라고 부른 것이며, 거기에 아무 附加的인 意味도 가지고 있지 않다.

③에 관해서는 이미指摘된 바와 같이³⁶⁾, 內口緣部 平坦面の 擴大와 稜線의 消失이라는 變化를 생각할 경우, VI→VII類라는 型式變化의 方向性を 想定할 수 있다. 그것을 出土層位에서 確認하면 一部 重複되기는 하지만 VI類가 相對的으로 아래쪽에서 出土되며 VII類가 相對的으로 上位에서 出土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³⁷⁾. 그래도 VI類·VII類는 모두 型式學的으로 보다 細分이 可能하며 具體的인 系統關係에 관해서는 不明確하다.

그리고 III類에 관해서는 ①에서의 型式變化의 方向性を 參考로 하면, 第2圖의 11·12→13라는 變化를 想定할 수 있다. 이 III類와 비슷한 器形은 隆起文土器中에서도 찾아낼 수 있어서³⁸⁾ 隆起文土器와 同一系統에 屬하는 器形變異라고 假定할 경우, 口緣部の 直立이 서서히 짧아지는 變化의 方向性으로도 理解된다. 또 IV類에 관해서는 出土個體數가 限定되어 明確하지 않지만, 5·6次 調査에서 第2圖의 14가 Vb層에서 出土되고 第2圖의 15가 Va層에서 出土되었다는 出土狀況을 積極的으로 評價한다면, 頸部 지름이 좁아지고 口緣部가 길어지면서 壺形土器와 비슷한 器形으로 變化했을 可能性을 생각해 볼 수 있다³⁹⁾.

以上, 檢討한 바와 같이 型式學的으로 想定한 器形變化의 組列의 兩端이 相對的으로 層位의 下位와 上位로 나뉘어서 出土됨을 알 수 있었다(第1表). 거기서 A地區 1~3次 調査의 V層에 있어서의 細別層位마다의 器種組成을 보았을 때, V-⑤層附近을 境界로 해서 樣相이 上下로 크게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壺形土器의 出現에 注目하면 V-③層과 V-②層사이에도 劃期를 認定할 수 있다⁴⁰⁾. 4次 調査에 있어서는 주로 V-⑤層 以下에서 遺物들이 出土되고 있는데 거기서의 樣相은 1~3次 調査에서의 V-⑤層 以下の 樣相과 類似하다. 또 5·6次 調査에 있어서는 層位關係를 直接 4次 調査까지의 層位와 連結하지 못 한다는 問題點이 있지만, V-a層 以下の 樣相은 V-⑤層 以下の 樣相과 서로 對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¹⁾. 이와 같이 器形變異의

36) 河仁秀 1995, 李東注 1996

37) VII類에 관해서는 비슷한 器形을 가진 隆起文土器가 出土되고 있고(任孝宰·權鶴洙 1984, 圖面 28-3), 2號住居址에서 出土된 VII類로 分類할 수 있는 土器(同 圖面19-1)에는 斜行하는 짧은 平行隆起線으로 文樣이 施文되고 있다는 등 隆起文土器群段階부터 繼續해서 存在한 器形일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38) 任孝宰·權鶴洙 1984, 圖面26-2

39) 이러한 變化過程에 대해서는 이미 李東注씨에 의해서도 指摘되고 있다(李東注 1996, p.156).

40) 새로 壺形土器라는 器種이 나타나는 點에서 V-②層에 劃期를 設定하는 見解는 이미 宮本一夫씨에 의해서도 提示되고 있다(宮本一夫 1986).

41) 實際로 4次 調査의 A地區 V-⑦層에서 調査되었던 集石遺構의 一部分가 5·6次 調査에서도

檢討를 통해서 보면 鰲山里遺蹟 V層에서의 細別層位の 層位關係는 部分的인 攪亂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程度 原狀을 維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은 文樣에 關係해서 檢討해 보고자 한다. 文樣變異의 檢討 역시, 먼저 型式學的으로 檢討한 뒤, 그것을 層位(第2表)로 確認하는 方法으로 進行하기로 한다. 그런데 型式學的 檢討는 文樣群別로 시행하는데 이것은 각 文樣群이 施文技法을 基準으로 나뉘어진 것이지만 文樣構成에 있어서도 어느 程度 共通性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第2表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 層位別 文樣變異 出土狀況

(1~3次 調査)

器形 層位	Aa1	Aa2	Ab1	Ab2	Ac1	Ac2	Ba1	Ba2	Bb1	Bb2	Bc1	Bc2	Bc3	Bd	Ca1	Ca2	Cb1	Cb2	Cc1	Da
III														1				1		
V①	(1)		1	2	3	3					1				1					
②									1							1		1		1
③				1	2				2(1)	1		1(1)	1		1(1)		1			
④										(1)					1	1	1			
⑤	2	2			2		1	1		1	1(1)				1				(1)	
⑥	2								(1)											
⑦	1							1(1)				1								

(4次 調査)

器形 層位	Aa1	Aa2	Ab1	Ab2	Ac1	Ac2	Ba1	Ba2	Bb1	Bb2	Bc1	Bc2	Bc3	Bd	Ca1	Ca2	Cb1	Cb2	Cc1	Da
III																				
V①	(1)																			
②	(1)																			
③																				
④																				
⑤	6	1	1									1								
⑥	1							1												
⑦								1												

調査되고 있어서 層位를 對比하기 위한 하나의 基準이 될 수 있다.

(5·6次 調査)

器形 層位	Aa1	Aa2	Ab1	Ab2	Ac1	Ac2	Ba1	Ba2	Bb1	Bb2	Bc1	Bc2	Bc3	Bd	Ca1	Ca2	Cb1	Cb2	Cc1	Da
III																				
Va					2	1														1
b	1	1					1													
c	3											4			1					
VI上面							1													

먼저 A文樣群에 관해서 살펴보면, 각 文樣變異는 文樣要素의 特徵에서 Aa1·2類(U字形竹管文), Ab1·2類(C字形竹管文), Ac1·2類(刺突点列文)의 3群으로 묶을 수 있다. 이들은 Aa1·Ab1·Ac1類와 Aa2·Ab2·Ac2類라는 對應關係로 '同一文樣構成을 다른 文樣要素로 表現하고 있는 關係'가 되는 것에서 同時期에 있어서의 多樣性 혹은 時期差일 可能性을 생각할 수 있다. 이 點을 文樣要素에 注目해서 解釋해 보면, U字形竹管文의 경우는 器面에 대해서 거의 垂直 方向에서 하나씩 刺突되어 있고, 게다가 左右의 竹管文이 一部 겹치도록 施文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등, 상당히 慎重하게 施文되어 있다. C字形竹管文의 경우는 器面에 대해서 비스듬한 方向에서 刺突되어 있어서 文樣施文이 옆으로 連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竹管文이라는 文樣要素에서는 U字形의 경우와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刺突点列文의 경우, 施文技法으로서 C字形竹管文과 비슷하지만 施文具가 竹管狀의 것에서 棒狀의 것으로 變化하고 있기 때문에 施文痕迹이 D字形으로 된 것을 비롯하여 多樣한 文樣要素들이 보인다. 이러한 樣相을 하나씩 個別的으로 施文하는 行爲에서 連續적으로 施文하는 行爲로 簡略化되는 方向性으로 把握한다면 U字形竹管文→C字形竹管文→D字形刺突点列文으로, 즉 Aa1·2類→Ab1·2類→Ac1·2類라는 型式變化의 方向性을 想定할 수 있다. 이것을 A地區 1~3次 調査에서의 出土層位로 檢討해보면 Aa1·2類가 Ab1·2類나 Ac1·2類보다도 相對적으로 아래 쪽에서 出土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Ab1·2類와 Ac1·2類의 關係를 살펴보면 양 文樣群 中에는 施文痕迹으로 볼 경우, 어느 쪽인지 區別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 點과 出土層位の 差異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點에서 Ab1·2類의 竹管文이 보다 先行하는 文樣要素이기는 하지만 거의 並存하는 것으로 把握하고 싶다.

B文樣群에 관해서도 A文樣群의 경우와 같은 理由로 Ba1·2類→Bb1·2

類→Bc1類라는 型式變化의 方向性을 想定할 수 있다. 그런데 Bc2類에 관해서는 刺突文이 竹管狀施文具가 아닌 棒狀(一部 柱狀·竹管狀도 包含)施文具로 施文되고 있다는 點으로 미루어 Bc1類와 關聯될 可能性이 높다. 그러나 Bc2類에서 보이는 三角形 刺突文과 連續刺突文이 同一한 施文具로 施文된 경우도 있어서⁴²⁾ Ba2·Bb2類와의 關聯性도 생각할 수 있다⁴³⁾.

따라서 Ba1·2類→Bb1·2, Bc1類

Bc2類→→→Bc2類 라는 圖式으로 그 關係를 表現할 수 있다. 이것을 出土層位로서 檢討해 보면, Ba1·2類가 Bb1·2類 및 Bc1類보다도 相對的으로 下位에서 出土되고 있고, Bc2類에 관해서는 Ba1·a2類와 關係하면서도 Bb1·2類나 Bc1類와도 一部 關係했을 可能性이 나타나고 있다. Bc3類에 대해서는 文樣要素의 類似性에서 Bc1類와 關聯性을 찾을 수 있으나, 連續刺突文의 列과 列 사이에 刺突文을 끼워 넣지 않고 若干 띄어서 施文함으로써 비슷한 文樣效果를 내고 있다. 따라서 Bc1類와 같은 段階 혹은 조금 낮은 段階에 該當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Bd類에 관해서는 多齒具에 의한 連續刺突文으로 橫帶區劃하고, 그 사이에 三角形 編目狀刺突文이 充填施文되어 있는데 鰲山里遺蹟 出土 鰲山里式土器에서는 多齒具라는 文樣要素가 一般의 인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그 系統에 관해서 確實히 言及할 수 없으나, 이러한 多齒具에 의한 連續刺突文은 韓半島 東北部地方이나 沿海州地方에서 찾아 볼 수 있는 文樣形態⁴⁴⁾이기 때문에 外來의 文樣要素일 可能性도 있다. 出土層位는 1~3次 調査의 A地區 III層에서 文樣變異 Cb2類·隆起文土器·無文樣土器들과 함께 出土되고 있지만 1點만이 出土되며 그 編年의 位置에 대해서는 確實하지 않다. 그러나 三角形 編目狀刺突文의 三角形이 逆三角形으로 되고 있는 點에서 Bc2類(第4圖·16)와의 類似性을 指摘할 수 있다.

다음으로 C文樣群에 관해서는 C文樣群의 文樣變異가 施文된 土器의 出

42) Ba·Bb·Bc類의 連續刺突文은 柱狀施文具의 납작한 部位를 利用해서 文樣이 새겨져 있는데, Bc2類에서 連續刺突文 사이에 施文되고 있는 三角形 刺突文 안에는 그 柱狀 施文具의 귀퉁이로 비스듬히 눌러 찍어서 三角形의 施文痕跡을 나타낸 것도 보인다. 물론 斷面 三角形의 棒狀施文具로 찍어서 施文한 것도 있고, 기타 여러 形態의 施文具들이 보인다. 刺突文의 施文技法에 있어서도 아래위로 잇달리게 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있는 등, 그러한 差異가 時間性을 가지고 있을 可能性도 考慮해 볼 必要性이 있다.

43) 그 경우, 竹管刺突文과 連續刺突文으로 施文具를 區別하지 않고 같은 施文具를 쓰면서도 다른 文樣效果를 낸 것으로서 理解할 수 있다.

44) 田中聰一 1999b

土量이 적어서 文樣變異 全體에 차지하는 比率이 낮기 때문에 型式學的으로 充分한 檢討를 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따라서 現況에서 言及할 수 있는 部分에 關係서만 斷片的으로 檢討하기로 한다. 먼저 Ca1·2類와 같이 連續刺突技法에 의한 短集線文이라는 文樣要素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인데, Ca2類에 關係서는 Ca1類에서 派生한 것으로 把握한다면, Ca1類에 關係서는 단 1點이 出土되었지만 Bc3類를 仲介로 해서 B文樣群과의 關聯性을 생각할 수도 있다. 連續刺突이라는 施文技法은 B文樣群의 文樣要素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거기서 刺突文이 省略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5·6次 調査의 V-c層에 있어서 Ca1類(第2圖-11)가 出土되고 있다. 이 連續刺突文은 같은 5·6次 調査의 VI層 上面에서 出土된 Ba1類(第2圖-16)의 連續刺突文과 흡사한 施文具로 施文되고 있는 것이며, Ba1類의 文樣構成에서 U字形竹管文에 의한 平行橫帶區劃이 省略된 文樣構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Ca1類에 關係서는 B文樣群과 같은 文樣的 意味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短集線文이 多條化해서 그 派生的인 性格을 가진 Ca2類가 出現한다고 하는 樣相은 李東注씨도 指摘한 바와 같이⁴⁵⁾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 中에서도 늦은 段階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서 말하면 1~3次 調査에서 Ca1·2類가 모두 A地區 V-⑤層보다도 上位에서 出土되고 있다.

Cb類의 斜格子文에 關係서는 沈線으로 施文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幅이 넓은 주걱狀 施文具에 의한 刺突을 交差시켜서 斜格子狀의 文樣形態를 施文한 것이다. Cb1類와 Cb2類의 關係에 대해서는 確實하지 않지만 비슷한 斜格子文이 施文된 點에서 Cb類로 分類했다. 出土層位는 Cb1類가 Cb2類보다도 아래쪽에서 出土되었는데 모두 1~3次 調査의 V-④(⑤?)層보다도 위쪽에서 出土되고 있다. 文樣構成으로 Cb1類는 Ca2類(第5圖-5)와, Bc2·Cb2類는 Bd類와의 關聯도 생각할 수 있고⁴⁶⁾, 그 경우 Cb2類도 Bd類와 같이 다른 土器樣式에 屬하는 型式 혹은 그 模倣品일 可能性⁴⁷⁾도 있다. 그러한 可能性은 Cc1·2類에 關係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D文樣群에 關係서인데 鰲山里遺蹟 出土 鰲山里式土器에는

45) 李東注 1996, p.156

46) Cb1·b2類의 斜格子文은 Bc2類(第4圖 16)나 Bd類(同 18)의 三角形 編目狀刺突文과 型式學的으로 關聯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7) 어떤 遺物이 그 遺蹟內에서 製作된 것인지 外部에서 搬入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模倣한 것인지는 그 遺蹟이 屬하는 樣式圈의 樣相과 周邊地域의 樣相을 充分히 檢討한 後에야 判斷할 수 있을 것이다. 現況에서 그 判斷을 내리기 어려우나 Bd類와 Cb2類에 關係서는 文樣要素의 共通性和 文樣構成의 類似性에서 서로 型式學的으로 關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沈線이라는 文樣要素가 一般的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文樣變異로서는 단지 平行多條沈線帶에 의한 山形文이 口緣部의 一部分에 거칠게 施文된 Da類를 設定할 수 있을 뿐이다. 1~3次 調査 A地區 V-②層(2號 住居址)에서 出土되고 있는데 그 型式學的인 系統關係 및 編年的 位置에 관해서는 不分明하다.

以上 檢討한 바와 같이 文樣變異에서도 型式組列의 兩端이 相對的으로 層位의 上位와 下位로 나뉘어져서 出土되는 樣相을 一部 認定할 수 있었다. 이것을 V層에서의 細別層位와 겹쳐서 본다면 1~3次 調査 V-⑤層附近을 境界로 해서 위아래에서 樣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와 비슷한 出土傾向은 4次 調査 및 5·6次 調査에서도 確認할 수 있다. 이것은 器形變異에서 檢討한 경우와 同一하며, 鰲山里遺蹟 V層 細別層位의 相對的인 上下關係가 어느 程度 維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傍證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는 器形變異와 文樣變異에 대해서 따로 檢討해 보았는데, 다음에는 器形變異와 文樣變異의 關係에 대해서 檢討해 보겠다(第3表). 먼저 兩者의 相關

第3表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 器形變異-文樣變異 相關關係

器形 文樣	Ia	Ib	IIa	IIb	III	IV	Va	Vb	Vc	VI	VII
Aa1	11	4			3		1				
Aa2	2	1				1					
Ab1											1
Ab2			1	1							
Ac1			2	3	1						1
Ac2			2	1							
Ba1							3				
Ba2							1	1			
Bb1				3							
Bb2				2	1						
Bc1			1	1							
Bc2						1	3	3			
Bc3									1		
Bd											1
Ca1				2	1					1	
Ca2										2	
Cb1						1				1	
Cc1						1					
Da										1	
無文	8	2	1	13	10	2	1			2	3

關係를 살펴보면, V層 堆積開始期부터 存在했던 器形變異인 Ia·b, Va·b 類와 相關성이 높은 文樣變異는 Aa1·a2, Ba1·a2·c2類이며 그것들은 V層 에서도 下位的인 樣相이 강한 文樣變異이다. 한편 V-⑤層 以後에 새로 나타난 器形變異인 IIa·b, Vc, VI, VII類와 相關성이 높은 文樣變異는 역시 V-⑤層 보다도 上位에서 주로 出土되고 있는 Ab1·b2·c1·c2, Bb1·b2·c1·c3·d, Ca1·a2·b1, Da類 등이다. 器形變異 III類 및 IV類에 관해서는 文樣變異와 의 相關성이 確實하지 않지만, 그것은 이들 器形變異가 型式變化하면서도 比較的 長期間에 걸쳐서 使用되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V-⑤層 附近에서 土器相에 어떤 差異가 있었을 것 같고, 따라서 器形·文樣上의 特徵에 있어서 一定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 2개의 土器群을 각각 V層 下位段階와 V層 上位段階로 設定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壺形土器의 出現에 의해서 特徵지을 수 있는 V-②層에서도 劃期를 設定할 수 있는데 文樣變異에 있어서는 別다른 變化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現段階에서는 上位段階를 2개의 土器相으로 보다 細分해서 把握하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한 段階로 해 놓는 것이 좋을 듯하다.

鰲山里遺蹟 V層 出土土器는 크게 下位段階와 上位段階로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그 兩段階사이에서 어떠한 變化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器形變異와 文樣變異에 관해서는 그 型式變化의 方向성이 層位的으로도 뒷받침된다는 것을 이미 確認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器形組成의 變化와 그 意味에 대해서 檢討하기로 한다.

먼저 層位別로 器形變異의 出土樣相 (第1表)을 살펴보면, V層 下位段階에서 V層 上位段階로 移行되면서 器形變異가 多樣化하는 傾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兩段階사이에서 土器의 機能的 側面이 어떻게 變化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각 器形變異別로 口徑의 分布를 檢討해 보았다(第4表). 그 結果 V層 下位段階의 中心的인 器形變異인 I類가 大·中·小型의 3group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에 비해⁴⁸⁾, V層 上位段階에서 I類와 같은 系統에 屬한다고 생각되는 II類에 있어서는 大·中型이 中心이 되고, 그것과 함께 小型을 中心으로 하는 VI·VII類가 새로 나타난다는 變化가 엿보인다. 이 VI·VII類를 同一形式內에서의 型式差라고 볼 경우에도 II類의 小型土器의 存在를 생각한다면, 小型土器의 器種의 多樣化 혹은 器種組成의 變化로서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즉 V層

48) 이러한 器種組成의 樣相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鰲山里遺蹟 A地區 7號 住居址 出土土器群이다(金元龍·任孝宰·權鶴洙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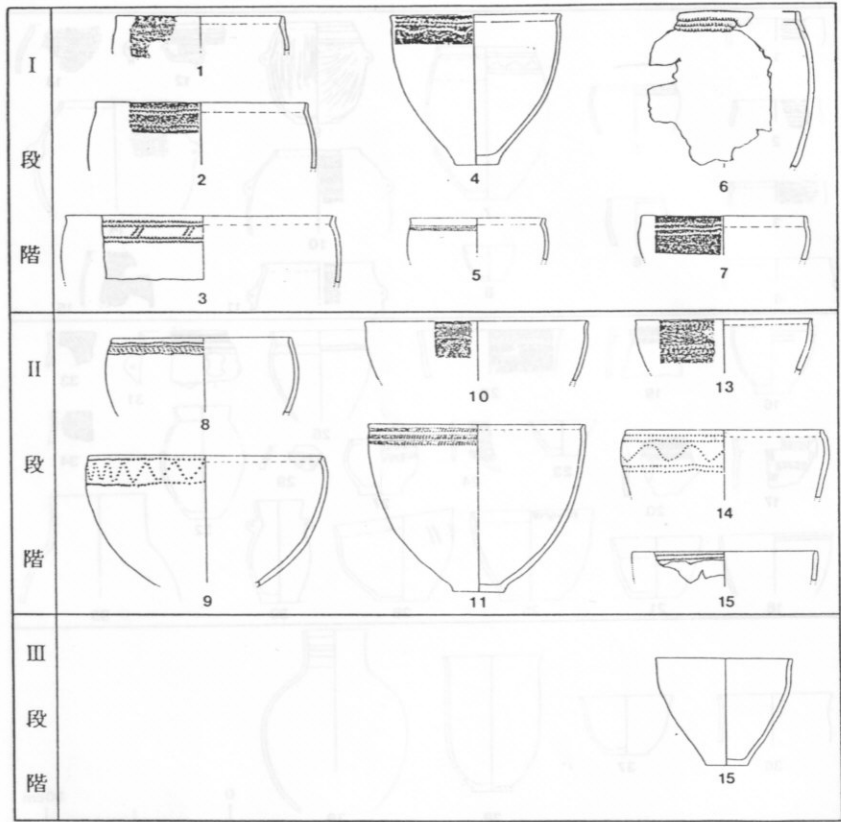
下位段階에서 同一器形の 土器의 法量을 다르게 만드는 것에 의해서 機能差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에 비해⁴⁹⁾, 上位段階에서는 大·中型土器와 小型土器를 다른 器形(器種)으로서 製作하기 시작하는 變化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 V層上位段階가 되면 器形變異 V類가 서서히 없어지는 傾向이 보이는데, 이것은 壺形과 비슷하게 變化한 器形變異 IV類와 既存의 V類가 機能的으로 서로 複合함으로써 새로 壺形土器라는 器種이 나타나고, 그 壺形土器에 의해서 機能이 代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리고 器形變異 III類에 관해서는 變遷過程을 밝히기 어려우나, 이것에 대해서도 機能的으로 다른 器形變異와 複合되었거나 다른 器形變異에 의해 그 機能이 代行되어서 사라졌다고 여겨진다. 즉, V層下位段階에서 上位段階로의 變遷過程은 多樣化와 複合이라는 兩面的인 變化로서 把握할 수 있는 性格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III層段階의 比較的의 單

第4表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 器形變異別 口徑 分布

口徑 器形	6~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51	~54
Ia			1	3	1	1		1	2	1			1			
Ib								1	1							
IIa								1	1			1				
IIb			1		2				2		2					1
III			1		1			1	1							
IV		1		2												
Va			1	1	2											
Vb			1	2	1											
VI				1	2											
VII			1	1	3		1									
壺	1	1		1												

(口徑의 單位는 cm.)

49) 土器의 法量의 差異가 機能差를 나타낸다고 하는 立場에서는 法量에 差異가 있는 것 自體가 器種(形式)을 分類하는 根據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法量까지 分類基準으로 해서 型式分類한 다음에 器種의 系統을 밝혀내는 方向에서의 研究가 必要하다.



第6圖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 變遷過程圖(1)

純한 器種組成으로 定型化해 가는 過程으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⁰⁾. 물론 V層 上位段階에 屬하는 土器群도 器形變異 및 文樣變異의 樣相에서 적어도 2段階 以上 細分이 可能하며, 그 土器들이 모두 同一時期의 器種組成(土器相)이라고 볼 수 없지만 크게는 以上과 같은 變遷過程을 想定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50) 鰲山里遺蹟 A地區 III層 出土土器는 無文의 中·小型 鉢形土器, 壺形土器가 中心이 되고 있고 大型土器가 出土되고 있지 않다. 이 段階에는 大型土器가 使用되지 않았을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지만 出土 個體數도 少數이기 때문에 出土土器가 이 段階의 土器相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 可能性도 있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 A地區 III層 出土 土器의 位置는 不安定한 狀態이지만, 여기서는 解釋 可能性의 하나로서 意見을 提示한 것이다.

4. 中東部地方에 있어서 鰲山里式土器의 位置

앞에서는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를 檢討하여 크게 3段階에 걸친 變遷過程으로 理解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鰲山里遺蹟 한 遺蹟에 대한 檢討 結果이기 때문에 鰲山里遺蹟이 立地하고 있는 韓半島 中東部地方의 新石器時代 土器編年에 있어서 鰲山里式土器가 어떤 位置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解答도 提示해 주지 못하고 있다. 鰲山里遺蹟에서는 鰲山里式土器 以外에 隆起文系土器群·沈線文系土器群에 屬하는 土器들도 出土되고 있고, 그것들과의 關係 혹은 周邊遺蹟 出土資料들과의 對比를 통해서 鰲山里式土器의 編年的 位置 問題를 다룬 論考도 이미 몇 編이 發表되고 있다⁵¹⁾. 여기서는 그러한 先學의 研究成果를 바탕으로, 最近에 새로 調査된 資料들 및 周邊地域에서의 研究成果 등을 考慮하여 鰲山里式土器의 編年的 位置와 變遷過程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中東部地方 新石器時代に 있어서 鰲山里式土器를 前後하는 時期의 土器編年에 관해서는 研究略史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隆起文系土器群→鰲山里式土器→沈線文系土器群이라는 큰 흐름으로 理解되고 있다. 이 先後關係에 대해서는 大部分 研究者들사이에서 共通된 見解를 가지고 있지만, 隆起文系土器群→鰲山里式土器 혹은 鰲山里式土器→沈線文系土器群이라는 樣式 轉換期의 樣相에 관해서는 不分明한 部分이 많다.

먼저 隆起文系土器群→鰲山里式土器라는 轉換期에 대해서 살펴보면, 鰲山里遺蹟出土 隆起文系土器는 隆起文系土器群의 I 段階와 III 段階의 時期에 該當하는 것들이 中心이 되고 있는데⁵²⁾ 出土樣相에 있어서는 鰲山里式土器와 共伴될 可能性을 찾기 힘들다. 器形이나 文樣形態의 一部에서는 鰲山里式土器와 어떤 關係가 있다는 것을 想起시키는 屬性도 認定되기는 하지만, 鰲山里式土器와는 若干 型式的 距離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隆起文系土器群과 鰲山里式土器 사이를 이어 주는 資料로서 注目되는 것이 高城 文岩里遺蹟 出土資料이다. 여기서 採集된 資料들 가운데에는 鰲山里式土器와 함께 隆起文系土器群(III~?)IV 段階의 隆起文系土器 등이 보이는데⁵³⁾ 鰲山里式土器는 本稿의 I·II 段階에 該當하는 資料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注目할만한 資料는 鰲山里式土器와 비슷한 文樣構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一部가 隆起帶로 施文된 土器⁵⁴⁾이다. 이 資料를

51) 宮本一夫 1986, 小原哲 1987, 金壯錫 1991, 李東注 1996 등

52) 田中聰一 1997

53) 金聖範·沈榮燮 1997

통해 文岩里遺蹟에는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보다 앞서는 時期의 鰲山里式土器(?)가 存在하고 있을 可能性이 생각되며, 그 土器群과 隆起文系土器群 IV段階의 土器群과의 關係⁵⁵⁾ 및 周邊地域 土器들과의 關係를 밝힘으로서 鰲山里式土器의 出現過程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現段階에서는 그 樣相에 대해서 그다지 明確하지 않으나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 I段階에 先行하고 隆起文系土器群과 一部 共存한 段階의 土器群의 存在 可能性에 대해서 注目해 두고 싶다.

한편, 鰲山里式土器→沈線文系土器群이라는 轉換期에 대해서는 鰲山里遺蹟의 層位關係에서 其 先後關係가 確實한 鰲山里式土器(A地區 III·V層 出土 土器)와 沈線文系土器群(B地區 2號 住居址)의 關係를 통해 說明되어 왔다. 鰲山里遺蹟 B地區 2號 住居址 出土 土器群에서 主體가 되는 것은 2部位文樣帶文樣構成(口緣部에 短斜集線文 혹은 斜格子沈線文, 胴~底部에 橫走魚骨沈線文을 施文)의 土器들이며, 그 밖에 1點뿐이지만 口緣部文樣帶와 胴部文樣帶사이 에 縱走魚骨文系集線文⁵⁶⁾(口緣部從屬文樣帶)을 施文한 土器片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時期的으로 늦은 土器型式을 基準으로 해서, 이 住居址의 時期가 中西部地方의 漢江流域·京畿灣地域 III段階⁵⁷⁾에 並行하는 時期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最近에 들어서 鰲山里遺蹟 A地區 III·V層 出土 鰲山里式土器와 同 B地區 2號 住居址 出土의 沈線文系土器群사이를 매워 주는 資料가 새로 調查되었는데, 그것이 襄陽 地鏡里遺蹟 4號 住居址와 柯坪里遺蹟 1號 住居址이다. 먼저 地鏡里遺蹟 4號 住居址에서는 鰲山里遺蹟 B地區 2號 住居址에서 1點만이 出土되었던 口緣部從屬文樣帶에 縱走魚骨文系集線文을 施文한 土器⁵⁸⁾가 어느 程度의 數量을 가지고 出土되었다⁵⁹⁾. 이 點으로 미루어 보아 縱走魚骨文系集線文이 施文된 土器가 中東部地方에서도 한 時期의 土器相을 構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縱走魚骨文系集線文이 施文된 土器는 漢江流域·

54) 金聖範·沈榮燮 1997, 圖面5-2, 6-3

55) 隆起文土器 時期問題에 대해서는 文岩里遺蹟의 具體의 內容을 안 후에 다시 檢討할 必要性이 있으며 여기서 言及하는 內容은 어디까지나 地表採集資料의 紹介(金聖範·沈榮燮 1997)를 통해서 알 수 있는 內容에 대한 筆者의 見解이다.

56) 田中聰一 1999a

57) 田中聰一 1999a

58) B地區 I層 出土資料 中에도 그 可能性이 있는 土器片이 2點 보인다(金元龍·任孝宰·權鶴洙 1985, 圖面16).

59) 高東淳 1999

京畿灣地域 土器編年の II 段階에 相當하는 資料들이다⁶⁰⁾. 그리고 柯坪里遺蹟 1 號 住居址에서는 縱走魚骨文系集線文이 成立하기 直前段階의 資料⁶¹⁾가 出土되고 있다⁶²⁾. 이 段階에 該當되는 資料는 中西部地方에서는 不明確하지만 型式學的으로는 그 時期를 漢江流域·京畿灣地域 I 段階末葉~II 段階初頭까지 올려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⁶³⁾.

以上과 같이 鰲山里式土器의 存續時期를 中東部地方 以外 地域과의 時期的 並行關係에서 생각할 경우, 最近 새로 調查된 資料들에 의하면 隆起文系土器群 IV 段階 以後 漢江流域·京畿灣地域 沈線文系土器群 II 段階(혹은 I 段階末葉~II 段階初頭) 以前의 時期幅으로 把握할 수 있다. 앞으로 調查活動이 進展 되면 보다 具體的인 時期的 並行關係와 樣式轉換期의 樣相에 接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部分에 대해서는 차후 繼續해서 檢討해 나가고 싶다. 그러면 이러한 時期幅 안에서 把握되는 鰲山里式土器의 變遷過程에 관해서 鰲山里遺蹟 出土資料를 통하여 概觀해 보고자 한다.

먼저 I 段階⁶⁴⁾에는 文樣要素로서 U 字形竹管文이 주로 使用되고, 一部 C 字形竹管文이나 短集線文·刺突文도 보인다. 그 가운데에서 短集線文·刺突文은 複合文樣帶을 構成하는 文樣要素로서 施文된 경우가 많다. 器形變異는 I a·b, III, IV, Va·b 類에 無文의 坩形土器(第7圖·8) 등이 隨伴하여, 文樣要素로서는 Aa1·a2·b1, Ba1·a2·c2, Ca1 類 등이 보인다. 器形變異와 文樣變異사이에는 어느 程度의 對應關係가 있고, 器形變異 I·III·IV 類에 文樣變異 A·C 類가 施文되며 器形變異 V 類에 文樣變異 B 類가 施文되는 경우가 많다. 器形의 特徵으로서는 口緣部가 뚜렷하게 屈曲하면서 外反 혹은 直立하도록 成形된 點을 들 수 있고, 大部分의 土器 內口緣部에는 稜線이 보인다. 器形變異 I·III·IV 類에 관해서는 口徑의 差異 및 器形上의 特徵에서 보다 細分이 可能하지만, 口徑의 差異는 時間的 差異보다도 오히려 機能的인 差異를 나타내고

60) 田中聰- 1999a

61) 3部位文樣帶文樣構成의 胴部文樣인 縱走魚骨沈線文이 위아래로 壓縮되면서 文樣帶 幅이 매우 좁아지는 段階의 資料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田中聰- 1999a, p.292, l.14~27).

62) 國立文化財研究所 1999, 圖面 11

63) 柯坪里遺蹟 1號 住居址에서는 2部位文樣帶文樣構成을 가진 土器나 口緣部文樣帶에 粗雜하게 斜格子文을 施文한 土器도 出土되고 있고, 그 防射線炭素年代가 4,570±60, 4,390±60 b.p.(B.C. 3,500~3,090, B.C. 3,310~2,890 校正年代)로 나와 있다. 그래서 이 住居址의 時期 自體는 보다 내려갈 可能性이 있다.

64)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鰲山里遺蹟에서 出土된 鰲山里式土器 보다도 앞선 時期的 鰲山里式土器의 存在 可能性도 있으며, 여기서 말한 I 期는 鰲山里式土器(樣式) 全體에서의 I 期가 아닐 수도 있다는 點에 注意해야 된다.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 게다가 資料的 問題도 있어서 型式學的인 時期差의 檢討는 하지 않았다. 器形變異 V類의 경우는 같은 I段階에 屬하는 資料들 중에서도 若干의 型式差가 存在하는데, 그것은 器形變異와 文樣變異의 組合 狀態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 變遷過程을 살펴보면, 器形變異 Va類와 文樣變異 Aa2·Ba1類가 組合되는 段階에서는 口緣部와 把手部 사이의 距離가 짧고, 口緣部와 把手部 사이에만 施文한다는 施文規制 때문에 그 좁은 空間에 文樣帶를 하나만 配置하게 된다(第7圖·9·12). 이것이 器形變異 Vb類 段階가 되면, 口緣部가 좁아지고 胴部가 보다 球形化되면서 把手部 位置가 胴體中央으로 若干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文樣 施文空間이 넓어지는 變化에 대해 文樣帶의 多帶化(文樣變異 Ba2·c2類의 施文)라는 行爲로 對應해 가는 樣相을 엿 볼 수 있다(同·10·13·14). 그리고 胴部の 球形度가 다시 緩慢해져서 器形變異가 Va類나 그것이 약간 變形된 器形이 되면서도 文樣變異는 여전히 多帶化된 文樣을 施文하는 段階로 推移한다(同·11·15)⁶⁵. 이 段階가 되면 器形變異 V類의 土器相에서의 位置가 不安定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連續的인 變化이지만 基本的인 文樣形態나 文樣要素는 그다지 크게 變化되고 있지 않는 點에서 比較的 짧은 時間에 이루어진 變化이었다고 여겨진다⁶⁶.

II段階는 C字形竹管文 및 各種 刺突文·連續刺突文·沈線文 등 文樣要素가 아주 多樣化된 段階이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해야 할 것은 II段階自體가 더욱 細分化될 可能性이 있다는 點이다. 器形變異는 IIa·b, III, IV, Vc, VI, VII類에 壺形土器(第7圖·30·35)·壙形土器 및 小型 土器(同·23·27·29) 등이 隨伴되며 文樣變異로서는 Ab1·b2·c1·c2, Bb1·b2·c1·c2·c3·d, Ca1·a2·b1·b2·c1, Da類⁶⁷ 등이 보이고, 器形變異·文樣變異 모두가 아주 多樣化된

65) 第8圖 15의 資料의 경우, 施文技法이나 文樣形態에 있어서 第7圖 8의 資料와 매우 흡사하며 II段階까지 時期가 내려갈 可能性도 있다.

66) 그렇게 생각할 경우, 第7圖·28의 土器가 問題로 될 것이다. 그 土器의 文樣은 刺突点列文 2條로 水平區劃하여 그 밑에 3條1單位의 平行点列文에 의한 山形文이 施文된 것이다. 文樣要素를 자세히 觀察해 보면 아주 가는 竹管狀 施文具에 의한 刺突임을 알 수 있는데 그 點에서는 第7圖·9·12와의 關係도 생각할 수 있는 資料이다. 그러나 그 刺突点列文은 文樣變異 Aa·Ba類와 같이 하나하나의 刺突文이 서로 겹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c2類의 施文技法과 비슷한 것이다. 이 文樣要素에 관해서는 I段階의 竹管刺突文과 다른 系統에 속하는 것으로 判斷하여 아직 具體的이지 않지만 中西部地方 沈線文系土器群의 文樣要素(有光教-1962, 圖版12-10)와의 關係도 생각하고 있다.

67) 여기서 第4圖·18(文樣變異 Bd類)과 第5圖·8(文樣變異 Cb2類)의 資料를 出土層位와는 다르게 II段階로 編年한 點이 問題가 될 것이다(實際로는 A地區 III層에서 出土). 그것은 다른 土器와의 型式學的 比較를 통해서 時期가 出土層位보다 올라갈 것이라고 본 結果이지만,

다. 器形變異에 있어서 大·中型 土器는 I段階와 별다른 差異가 없지만, 小型 土器에 있어서는 그것이 多樣化되어 가는 變化를 볼 수 있다. 이것은 I段階에 있어서 土器의 法量을 다르게 만들고 機能差를 나타내고 있던 것이 II段階가 되면서 土器의 크기에 따라서 器種을 따로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器形變異 IV類와 V類가 機能的으로 複合된 形態⁶⁸라고 생각될 수 있는 壺形土器가 늦어도 II段階의 後半에 새롭게 나타난다. 以上の 型式變化에서는 土器의 器形變異나 法量에 따라 變化의 方向性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點에 그 特徵이 있는데, 大·中型 土器에서는 口緣部의 外反部가 짧아지는 方向으로, 小型 및 壺形으로 變化하는 器形變異는 그것이 길어지는 方向으로 각각 變化하고 있다. 또 그러한 型式變化의 組列에 包含시킬 수 없는 多樣的한 小型 土器들도 보인다. 한편, 文樣에 있어서는 口緣部 文樣帶에 橫帶區劃하여 그 안에 山形 혹은 平行斜行点列文을 施文한 I段階의인 文樣構成에서 같은 口緣部 文樣帶에 橫走点列文이나 橫走連續刺突文을 多條로 施文하는 文樣構成으로 서서히 變化했을 可能性이 생각된다. 그리고 外來系 혹은 그것과 어떤 關係가 있다고 생각되는 土器가 出土되는 등, 地域間 交流의 痕迹이 다른 段階와 比較해서 많이 나타나는 段階이다.

마지막 III段階에 대해서는 無文樣 土器가 中心이 되며 器種組成도 앞 時期와 比較할 때 보다 定型화된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I段階까지의 土器相이 II段階가 되면 多樣화된 후, 다시 再統合되는 큰 흐름의 延長으로 理解할 수 있다. 그러나 鰲山里遺蹟 A地區 III層의 出土土器는 少量이며 그 當時의 土器相을 復元하기에는 多少 資料的으로 不足하다는 느낌이 든다. 만약 鰲山里遺蹟 A地區 III層 出土土器의 Set가 그 當時의 土器相을 나타내고 있다고 假定하면, 그 土器相은 無文樣의 中·小型 鉢形土器(器形變異 VII類)와 壺形土器(第7圖-38), Cup形土器⁶⁹(同-37)만으로 構成되고 있었던 것이 된다. 實際로 지금 보이는 III段階의 樣相이 그 當時의 土器相을 어느 程度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大型 土器에는 다른 土器가 Set를 이루고 있었을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경우 時期的으로 連續하는 II段階 土器의 一部와 共伴되었을 可能性이나 沈線文系土器群에 屬하는 土器와 共伴되었을 可能性 등 여러 可能性을 생각해

그 資料들은 文樣要素의 特徵에서 볼 때 外來的인 要素인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系統的인 型式組列과는 따로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 編年의 位置에 관해서는 檢討할 餘地가 있다.

68) 그 根據가 될 수 있는 資料가 第8圖의 32인데, 器形變異 IV類의 文樣으로서 주로 V類에 施文되고 있는 文樣變異 Bc2類가 施文되고 있다.

69) 胴部가 긴 圓筒形을 나타내며 口緣部가 外反하는 平底 土器이다.

볼 수도 있지만, 그可能性中 어느 하나를 選擇하는 것은 現段階에서는 至極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調査의 進展與否에 따라 Ⅲ段階의 樣相은 보다 자세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點에 대해서는 다음 沈線文系 土器群 段階로의 轉換過程과 함께 檢討할 必要性이 있고, 鰲山里式土器만을 個別的으로 檢討할 것이 아니라 時間的 脈絡속에서 把握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5. 小結

이번 小稿는 鰲山里遺蹟 A地區 V層의 細別層位の 層位關係에 대해서 檢討하여 이것이 어느 程度 原狀을 維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疑問에서부터 出發했다. 그리고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에 대한 器形變異·文樣變異의 型式學 및 層位學의 分析을 통해서, 그 層位關係는 어느 程度 維持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었고,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의 變遷過程과 함께 鰲山里式土器의 中東部地方 新石器時代에서의 編年的位置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結果, 鰲山里遺蹟出土 鰲山里式土器는 A地區 V層을 V-⑤層을 境界로 해서 나누어 볼 때, 相對的으로 아래쪽에서 出土된 土器群을 特徵으로 하는 I 段階와 相對的으로 위쪽에서 出土된 土器群을 特徵으로 하는 II 段階, 그리고 III層 出土土器群을 特徵으로 하는 III 段階로 크게 編年할 수 있었다. 型式學的으로 보면 I·II 段階 모두 時期를 보다 細分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III 段階에 관해서는 그 當時의 土器相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 아직까지 編年自體가 不安定한 狀態이다. 그러나 現況에서 想定할 수 있는 劃期の 設定과 型式變化過程, 編年的 位置에 대한 說明은 多少나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鰲山里式土器는 韓半島 中東部地方 新石器時代文化의 研究뿐만 아니라 東北아시아 全體, 특히 東海岸을 舞臺로 한 先史時代 人들끼리의 交流問題를 생각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重要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鰲山里式土器段階에 있어서 土器樣式의 實像과 文化樣相에 관한 直接的인 資料가 미흡하고 具體的인 編年問題나 기타 地域과의 交流關係에 대해서도 充分한 論議를 할 수 없는 實情이다. 本稿 역시 이러한 點에서 미흡한 部分이 있었고, 論理展開에도 많은 飛躍과 誤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 點에 대해서

는 앞으로 繼續해서 檢討하여 補完·修正토록 하겠다.

追記

이 小稿는 筆者가 1997年度에 東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課程 在學中, 李蘭暎교수님의 授業時間에 發表한 內容을 基礎로 해서 整理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올해 東亞大學校를 停年退任하셨는데, 停年紀念論文으로 이 글을 獻呈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授業時間에 제 發表文의 글자를 하나하나씩 고쳐 주셔서 發表보다도 오히려 한국말 공부를 많이 한 듯한 記憶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글을 보시고 아직도 서투른 한국어 實力에 너무 失望하실까 걱정됩니다만, 공부하는 學生으로서 그 동안 해 온 것을 선생님께 보여 드리는 것 역시 학생의 任務中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勇氣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健勝과 선생님의 學文에 대한 진지한 姿勢를 언제까지나 간직하기를 祈願합니다.

그리고 本稿를 作成하는데 있어서 襄陽 鰲山里遺蹟 出土資料와 高城 文岩里遺蹟 出土資料를 實見할 수 있는 機會를 얻을 수 있던 것은 아주 多幸한 일이었으며 本稿의 着想에서부터 論의 展開까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資料의 實見과 資料收集에 있어서 김성남·임상택(서울大學校, 鰲山里遺蹟), 심희권·오현덕(國立文化財研究所, 文岩里遺蹟)씨에게도 협조를 받았습니다. 또 日本 九州大學 大學院 博士課程에 留學 中인 崔鐘赫씨와의 討論을 통해서 內容이 整理된 部分도 있었습니다. 以上, 芳名을 明記하여 感謝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參考 및 引用文獻(가나다順)

- 高東淳 1999 「강원도 동해안의 신석기유적에 대한 소고-양양 지경리유적을 중심으로-」
『남한 신석기문화의 지역적 양상』,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廣瀬雄一 1984 「韓國隆起文土器論 編年を中心として-」 『異貌』11, 共同體研究會
- 國立文化財研究所 1998 『'98 고성 문암리 선사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의 자료』 1999
『襄陽 柯坪里』
- 宮本一夫 1986 「朝鮮有文土器の編年と地域性」 『朝鮮學報』121, 朝鮮學會

- 權赫在 1997 『自然地理學』第2版, 法文社, (1983년에 初版 發刊)
- 今福利惠 1990 「勝坂式土器の個性と多様性」『考古學雜誌』76-2
- 今村啓爾 1983 「文様の割り付けと文様帯」『縄文文化の研究』5, 雄山閣
- 金聖範・沈榮燮 1997 「軍事保護區域内 文化遺蹟 地表調査 概報-江原道 高城郡篇-」『文化財』30
- 金元龍 1963 「春川 校洞 穴居遺蹟과 遺物」『歷史學報』20
- 金元龍・任孝宰・權鶴洙 1985 『鰲山里遺蹟』II
- 金壯錫 1991 『오산리토기의 연구』, 서울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 朴廣春 1994 「伽倻土器의 分類單位 設定과 編年-陝川地域 古墳出土土器를 對象으로-」『伽倻文化』7, 伽倻文化研究院
- 白弘基 1980 「江原道 東海岸의 櫛文土器文化」『歷史學報』87
- _____ 1991 「I. 遺蹟調査概要」『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 江陵大學校博物館
- _____ 1995 「東海岸 先史文化의 特性-襄陽郡 地鏡里 出土 土器를 중심으로-」『韓・日先史文化의 交流와 襄陽 鰲山里遺蹟 新石器文化』, 襄陽文化院・韓國新石器研究會
- 小林達雄 1989 「縄文土器の樣式と型式と形式」『縄文土器大觀』4, 小學館
- 小原哲 1987 「朝鮮櫛目文土器の研究」『東アジアの考古と歷史』中, 岡崎敬先生退官記念事業會
- 岩永省三 1989 「土器から見た彌生時代社會の動態-北部九州地方の後期を中心として-」『生産と流通の考古學』I, 横山浩一先生退官記念事業會
- 有光教一 1938 「朝鮮江原道の先史時代遺物」『考古學雜誌』28-11
- _____ 1962 『朝鮮櫛目文土器の研究』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 第3冊
- 尹根一 1996 「襄陽 柯坪里 新石器時代遺蹟에 대하여」『東아시아에 있어서 襄陽 鰲山里 新石器文化의 位置』, 襄陽文化院・韓國新石器研究會
- 李東注 1996 『韓國 先史時代 南海岸 有文土器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博士論文
- 任孝宰 1966 「溟州郡 領津里와 加屯址 櫛文土器遺蹟」『考古美術』7-6
- _____ (服部研二譯)1987 「鰲山里-韓國の初期新石器時代のセトルメント-」『東アジアの考古と歷史』中, 岡崎敬先生退官記念事業會
- _____ 1991 「중부 동해안과 동북 지역의 신석기문화 관련성 연구」『韓國考古學報』26, 韓國考古學會
- 任孝宰・權鶴洙 1984 『鰲山里遺蹟』
- 任孝宰・李俊貞 1988 『鰲山里遺蹟』III
- 田中聰一 1997 「韓國 新石器時代 隆起文土器에 대하여」『文物研究』創刊號, 東아시아文物研究學術財團
- _____ 1998 「韓國 新石器時代 前期의 一樣相-南部地方 瀛仙洞式土器 編年試論-」『考古歷史學誌』13・14, 東亞大學校博物館
- _____ 1999a 「韓國 中西部地方の新石器時代土器について」『先史學・考古學論究』III, 龍田考古學會

- _____ 1999b 「韓國 東北部地方 新石器時代 土器에 대하여-西浦項 I · II 期와 그 周邊-」 『韓日新石器研究會 第3回 鹿兒島大會 資料集』, 九州繩文研究會
- 池賢柄 1991 「II. 地表調査內容」 『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 江陵大學校博物館
- 河仁秀 1995 「鰲山里土器의 再檢討」 『釜山廣域市立博物館研究論集』3